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땅에 불을 주러 왔다. 그러나 땅의 사람들에게 이 불이 붙기까지는 얼마나 내 심정이 답답하겠느냐.” 하며 심정 이야기를 하셨다. <심정>을 겪어본 자는 알 것이다. 어느 때는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신도, 뇌의 신경도 뒤집어진다.
2. 어느 때는 하나님도, 주도 자기를 위해서 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지 속의 상극 세계가 되기도 한다. <요시야 왕>도 그러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 갈그미스를 치게 하셨는데 요시야는 그것을 몰랐다.
3. <아담과 하와>도 ‘무지’로 인해 해를 받고, 갖은 고통을 받았다.
4. <상식을 아는 지식>이다.
5. 자기를 위해 해 주셨는데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고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주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주와 심정 일체 되어 ‘주 안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6. 주의 심정을 알아라. 그 지식을 가져라.
7. <심정>을 모르면 ‘심정의 대화’를 할 수가 없다.

8. <심정>을 모르면 ‘일반 대화’는 할 수 있어도 ‘깊은 대화, 심정을 알아주는 대화’는 못 한다.
9. 많은 지식을 배우고 알아도 ‘주의 마음, 심정’을 모르면, 그 세계에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단계의 것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주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에 맞게 대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
11. <주의 계획>을 알아야 그 심정을 알고 대하게 된다.
12. <마음과 심정을 알고 대해 주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마음이 통하게 된다.
13. <주의 마음, 심정>을 몰라서 부딪히는 일이 있다.
14. <주>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는데, 불이 붙기까지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15. <말씀의 불>은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도 되지만, ‘주의 사역의 말씀’도 되고, 또 ‘세상의 사역의 말씀’도 된다.
16. <심정의 세계>를 알려면, ‘심정의 도, 심정의 진리’를 꼭 배워야 한다.

17.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18. 알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한다.

19. 어떤 사람은 수십억짜리 돌을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한다. 그만큼 귀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선생도 <하나님의 자연성전>에 돌을 가져다 놓을 때 그 돌이 시중 물가보다 비싼지 모르고 샀다. 왜? 선생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중 어떤 것은 100배, 200배 이상 가치 있는 돌도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돌이나 소나무를 살 때 하나님은 ‘시중 물가’ 대로 지출하라고 하신다. 고로 모두 보편적인 가격을 주고 사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더 좋은 것’을 사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수석의 눈, 예술의 눈, 형상과 모양의 눈’을 떼었다.

20. <배울 때>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 많이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

21. 돈을 안 주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곧 ‘기도’다. 영계에 들어가면, 영안으로 꿰뚫어져 보이면서 그것의 가치까지 훤히 보인다. <하나님 성전의 돌들>도 이렇게 해서 구해다 왔다. 처음에는 모르고 갖다 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좋은 돌들이었다.

22.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시중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23. <지식>의 귀함과 가치를 알아라.
24. 알면, 성공한다.
25.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 사사들, 왕들을 통해 외치시면서 그 지식을 계속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
26. 하나님은 ‘어느 시대’ 이냐에 따라 그에 맞게 사람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솔로몬도 그대에 맞게 보내셨다. 그때는 ‘완성급의 통일왕국 시대’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시대였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자 솔로몬’을 보내셨다.
27. <사울 왕 때>는 ‘구약과 같은 입장’ 이었고, <다윗 왕 때>는 ‘신약과 같은 입장’ 이었다. <솔로몬 때>는 ‘성약과 같은 입장’ 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때였다. <그 시대>에는 ‘그 사람’ 밖에 안 온다. 다른 사람이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으신다. <봄>에는 ‘봄의 씨’ 만 성공하지, ‘가을 씨’ 를 가지고는 성공이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아예 뿌리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해당되는 인물’ 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 때> 신약역사를 할 리 만무하고, <신약 때> 성약역사를 할 리 만무하다.

28. <그 시대>가 와야 ‘그 시대 사람’을 보내신다. 이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 역사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여라.
29. 지금 시대는 ‘부활기, 살아나는 시대’다. <완전한 완성을 보는 시대, 완벽하게 하는 시대>다. 이때 하나님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다 주신다.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 주시는 것이다.
30. <시대>가 왔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안 주시면 모르고, 써먹지를 못한다.
31. 지금은 <시대>가 돼서 하나님은 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다 주시니, 우리는 때를 따라 발을 맞춰 가야 된다.
32. <자기>로 축소해서 ‘때’를 보면,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될 때’ 돈을 벌고, ‘성장을 해야 될 때’ 성장해야 된다. 선생도 산에서 공부할 때, 그때는 눈이 오면 눈을 먹어 가면서, 비가 오면 빗물에 씻어 가면서 배웠다. 그때, 배울 때 안 배웠으면 못 했다. <축구 할 때>도 그러하다. 땀이 나서 몸이 풀렸을 때, 그때 못 뛰면 끝난다.
33. 사람들을 보면, ‘아는 지식’은 많은데 행동을 못 할 때가 많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34. 하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지식을 얻으려면 사람들과 자꾸 대화해 보아라.” 하셨다. 그 사람이 겪은 것이 ‘큰

지식들’ 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책 한 권’ 이다.